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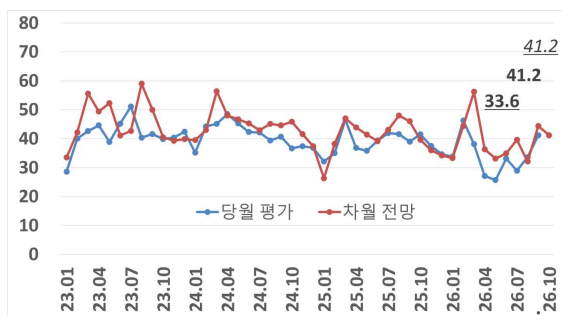
I. 2026년 9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10월 전망

■ 9월의 경기평가는 소폭 상승, 차월도 유사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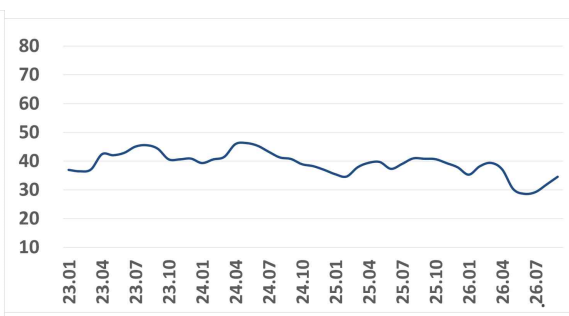
- 9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1.2로 전월(33.6)에 이어 소폭 상승했으며(+7.6p), 전년 동월(39.0)보다 조금 높았음(+2.2p). 차월(41.2)에도 금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0.0p). 이번 조사에서도 중동사태의 여파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건설노조들로 인한 현장운영의 어려움,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수주경쟁의 심화, 기능인력·자재비 등 공사비 상승이 토로됨.
- 수도권은 47.4(38.9→47.4)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8.5p), 지방은 38.4(31.4→38.4)로 수도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상승함(+7.0p).

〈표-1〉 2026년 9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10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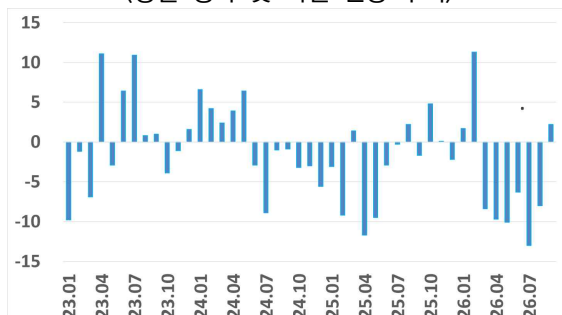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6년 9월 평가	41.2	39.0	47.4	38.4	50.0	41.3
2026년 10월 전망	41.2	39.6	40.4	41.6	34.4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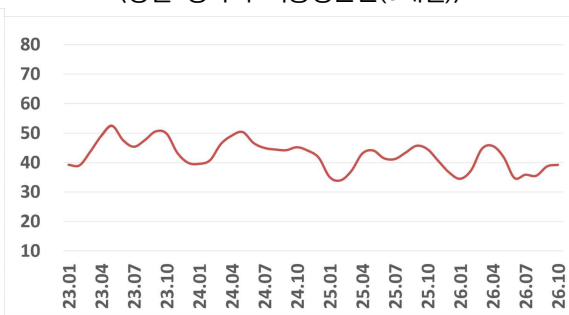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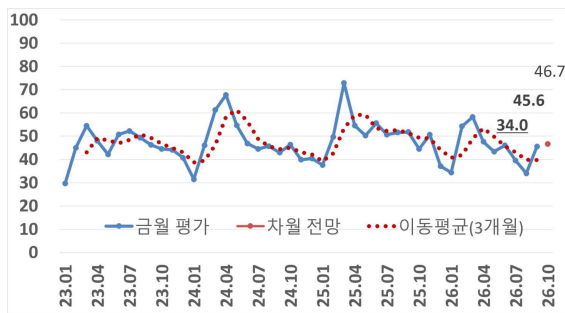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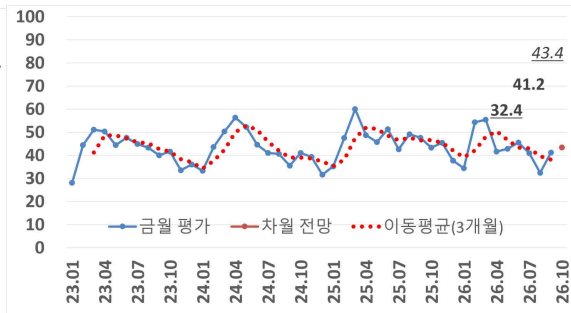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5.6(34.0→45.6)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지만(+11.6p), 전년 동월(51.8)보다는 낮은 수준임(-6.2p). 하도급수주도 41.2(32.4→41.2)로 상승했지만(+8.8p) 역시 전년 동월(47.6)보다 낮았음(-6.4p). 공사발주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SOC 및 반도체 관련 건설공사의 증가를 기대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7.2→68.4)에서 전월보다 크게 상승했으며(+21.2p), 지방(28.4→35.2)도 소폭 상승함(+6.8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38.9→57.9)에서 전월과 달리 상승했으며(+19.0p). 지방(29.6→33.6)은 전월에 이어 상승함(+4.0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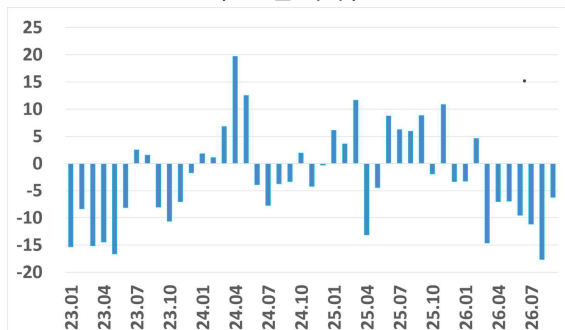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6년 9월 평가	45.6	51.8	68.4	35.2	81.3	46.0
	2026년 10월 전망	46.7	49.4	59.6	40.8	62.5	50.8
하도급 수주	2026년 9월 평가	41.2	47.6	57.9	33.6	68.8	36.5
	2026년 10월 전망	43.4	50.0	61.4	35.2	68.8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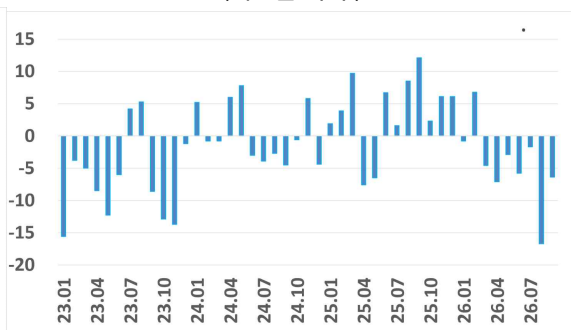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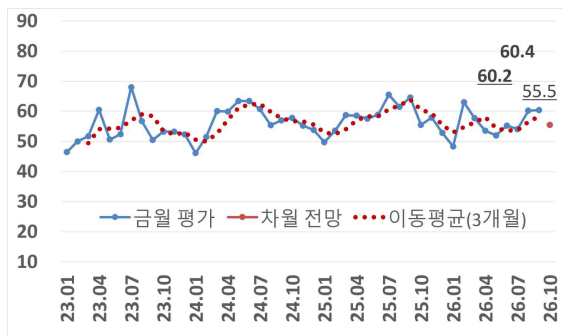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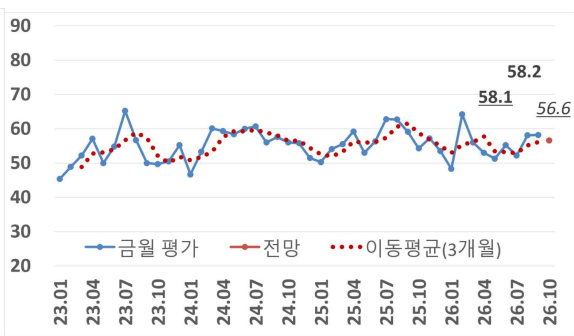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0.4(60.2→60.4)로 전월과 유사했지만(+0.2p), 차월(55.5)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9p).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기성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히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68.1→71.9)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반면(+3.8p), 지방(56.8→55.2)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집계 됨(-1.6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8.2(58.1→58.2)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0.1p) 전년 동월(59.1)과도 유사한 수준이었음(-0.9p), 차월(56.6)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1.6p)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66.7→66.7)은 전월과 동일(+0.0p), 지방(54.4→54.4)도 차이가 없었음(+0.0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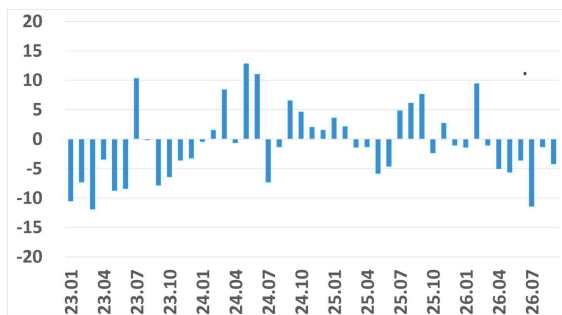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6년 9월 평가	60.4	64.6	71.9	55.2	71.9	58.7
	2026년 10월 전망	55.5	53.0	68.4	49.6	65.6	54.0
자금조달	2026년 9월 평가	58.2	59.1	66.7	54.4	65.6	55.6
	2026년 10월 전망	56.6	56.7	68.4	51.2	75.0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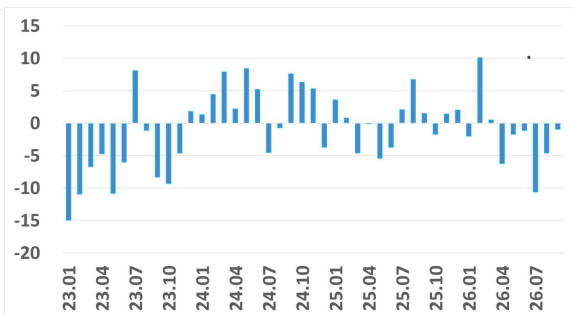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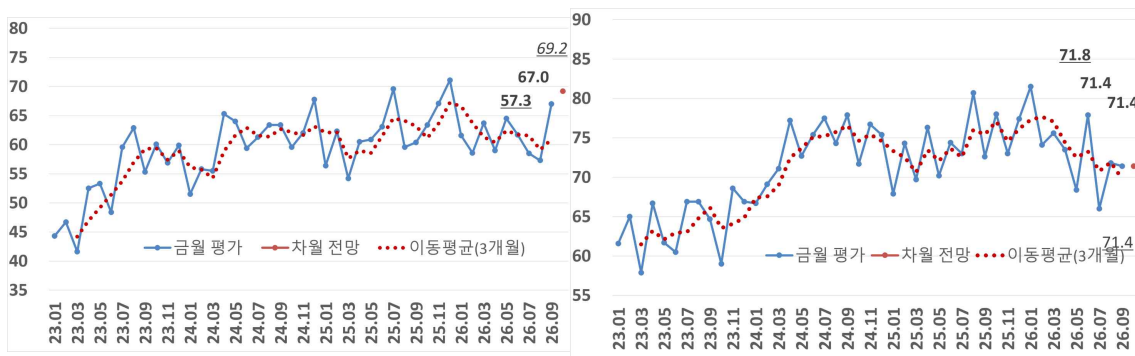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상승, 기능인력수급은 전월 수준 지속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7.0(57.3→67.0)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9.7p) 이는 전년 동월(60.4)보다도 높았음(+6.6p), 다만 전문건설공사의 단가 대비 기능인력의 임금과 장비대여대금의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여전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수도권(52.8→64.9)은 전월보다 상승(+12.1p), 지방(59.2→68.0)도 상승함(+8.8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1.4(71.8→71.4)로 전월과 비슷했으며(-0.4p), 전년 동월(72.6)과도 큰 차이가 없었음(-1.2p). 기능인력의 수급과 고령화는 고질적인 사안임.
 - 수도권(69.4→70.2)은 전월 수준(+0.8p), 지방(72.8→72.0)도 유사함(-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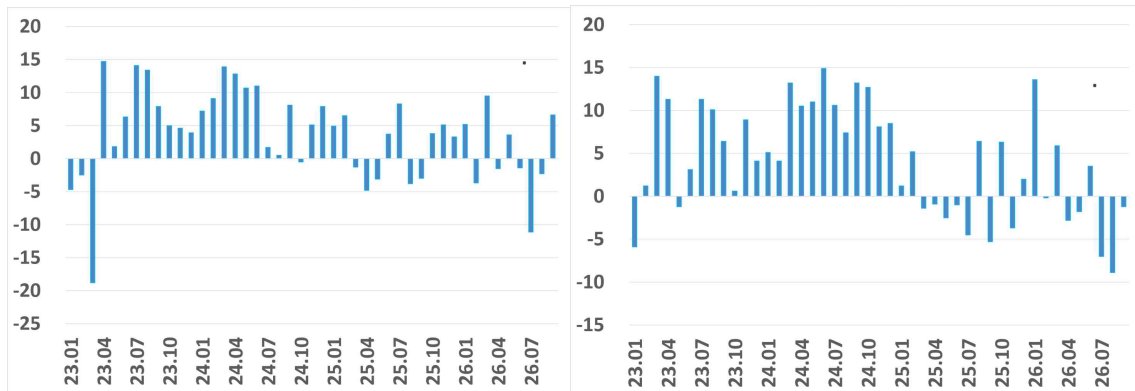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6년 9월 평가	67.0	60.4	64.9	68.0	59.4	74.6
	2026년 10월 전망	69.2	64.6	61.4	72.8	56.3	81.0
인력수급	2026년 9월 평가	71.4	72.6	70.2	72.0	65.6	76.2
	2026년 10월 전망	71.4	75.0	68.4	72.8	68.8	74.6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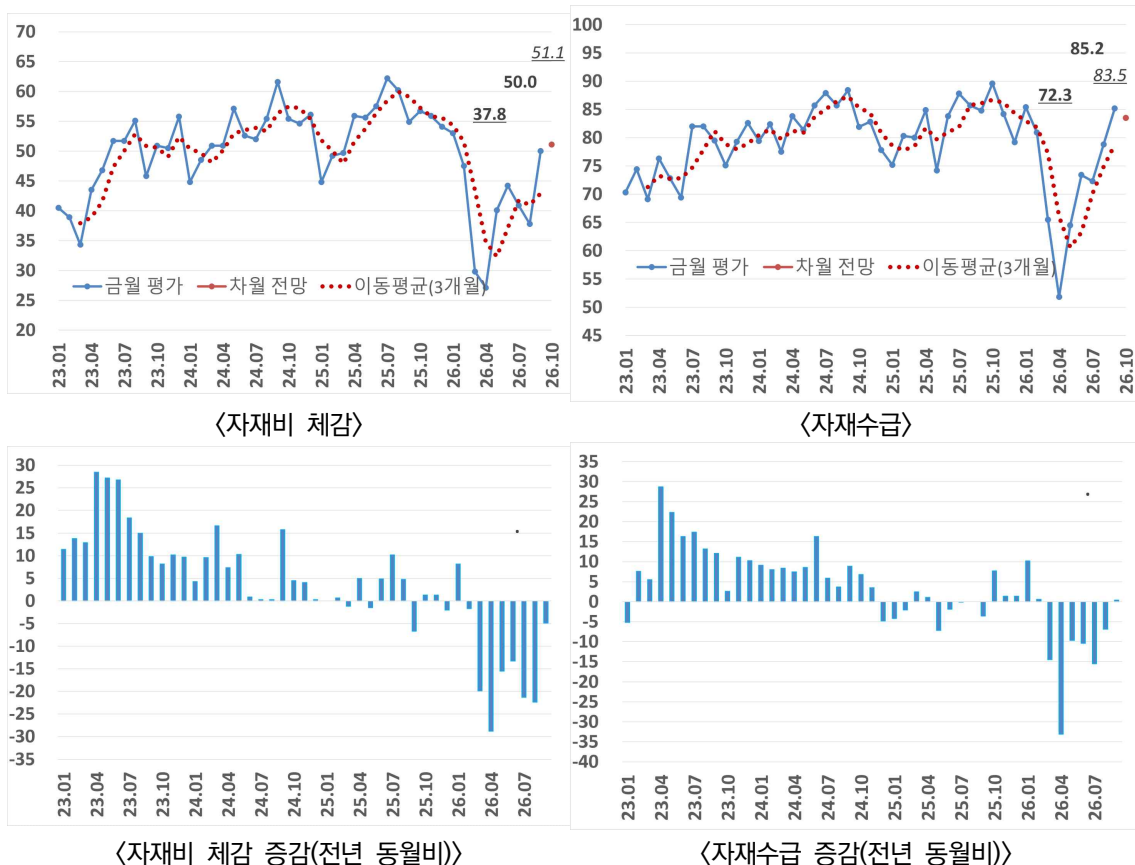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²⁾)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기저효과로 상승

- 자재비³⁾ 경기실사지수는 50.0(37.8→50.0)으로 상승했지만(+12.2p) 이는 전월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임에 유의해야 함. 차월(51.1)은 금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1.1p).
 - 수도권(33.3→45.6)은 전월 대비 상승(+12.3p), 지방(39.6→52.0)도 상승함(+12.4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도 85.2(78.8→85.2)로 상승했으며(+12.9p), 차월(83.5)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1.7p).
 - 수도권(73.6→86.0)은 크게 상승(+12.4p), 지방(81.1→84.8)은 소폭 상승함(+3.7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6년 9월 평가	50.0	54.9	45.6	52.0	50.0	66.7
	2026년 10월 전망	51.1	59.1	40.4	56.0	34.4	63.5
자재수급	2026년 9월 평가	85.2	84.8	86.0	84.8	68.8	92.1
	2026년 10월 전망	83.5	84.1	80.7	84.8	62.5	87.3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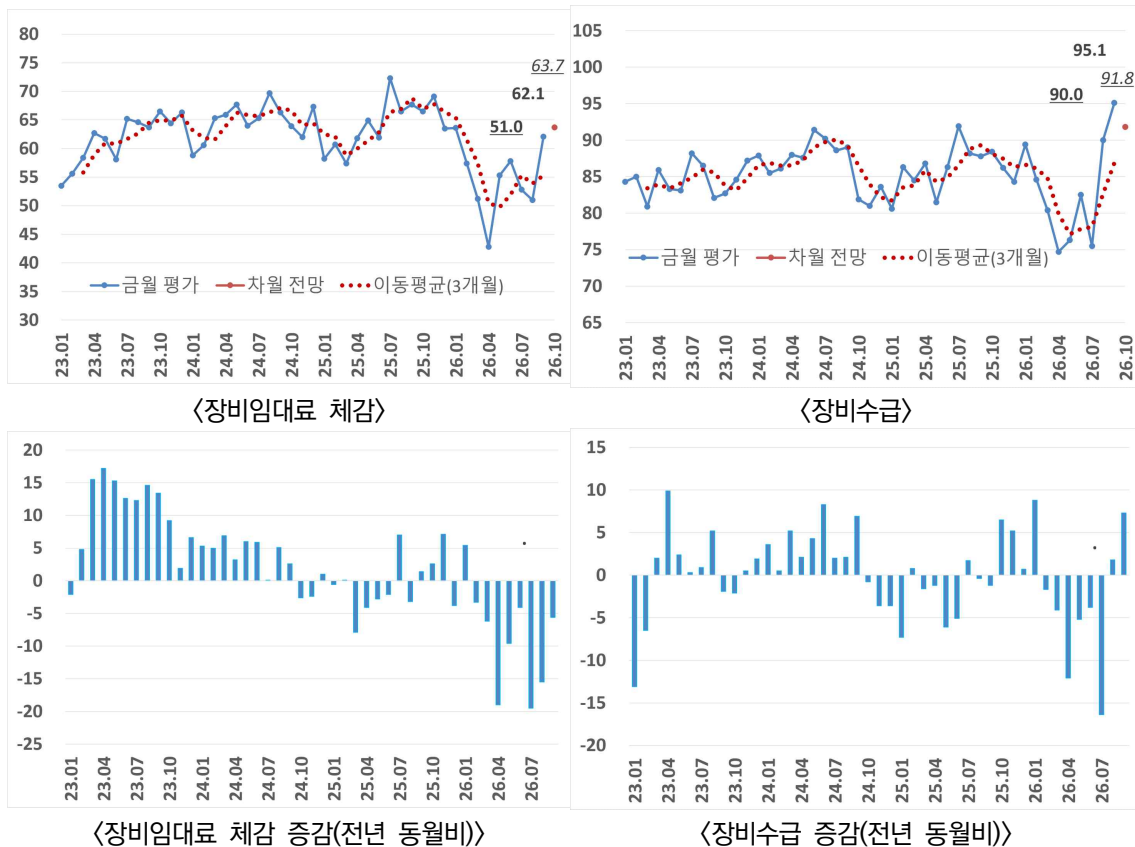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상승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2.1(51.0→62.1)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11.1p), 차월(63.7)에도 소폭의 상승이 전망됨(+1.6p). 다만 중동사태의 지속 등에 따른 장비임대료의 증가는 꾸준히 우려되는 사안임.
 - 수도권(48.6→61.4)은 크게 상승(+12.8p), 지방(52.1→62.4)도 상승함(+10.3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95.1(90.0→95.1)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5.1p), 차월(91.8)에는 다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3.3p).
 - 수도권(88.9→91.2)은 소폭 상승(+2.3p), 지방(90.5→96.8)도 상승함(+6.3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6년 9월 평가	62.1	67.7	61.4	62.4	62.5	69.8
	2026년 10월 전망	63.7	63.4	54.4	68.0	56.3	66.7
장비수급	2026년 9월 평가	95.1	87.8	91.2	96.8	71.9	100.0
	2026년 10월 전망	91.8	89.0	93.0	91.2	78.1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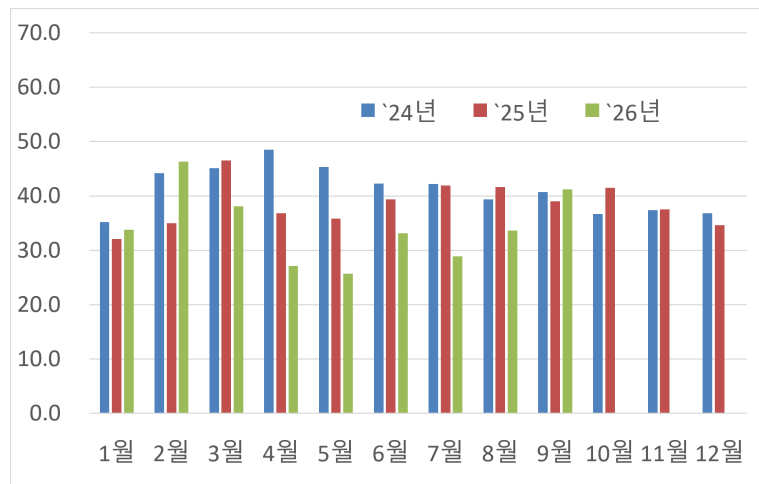


참고: 2026년 9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1.2	39.0	47.4	38.4	50.0	41.3
		차월 전망	41.2	39.6	40.4	41.6	34.4	44.4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5.6	51.8	68.4	35.2	81.3	46.0
		차월 전망	46.7	49.4	59.6	40.8	62.5	50.8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1.2	47.6	57.9	33.6	68.8	36.5
		차월 전망	43.4	50.0	61.4	35.2	68.8	41.3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60.4	64.6	71.9	55.2	71.9	58.7
		차월 전망	55.5	53.0	68.4	49.6	65.6	54.0
	자금조달	금월 평가	58.2	59.1	66.7	54.4	65.6	55.6
		차월 전망	56.6	56.7	68.4	51.2	75.0	54.0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7.0	60.4	64.9	68.0	59.4	74.6
		차월 전망	69.2	64.6	61.4	72.8	56.3	81.0
	인력수급	금월 평가	71.4	72.6	70.2	72.0	65.6	76.2
		차월 전망	71.4	75.0	68.4	72.8	68.8	74.6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0.0	54.9	45.6	52.0	50.0	66.7
		차월 전망	51.1	59.1	40.4	56.0	34.4	63.5
	자재수급	금월 평가	85.2	84.8	86.0	84.8	68.8	92.1
		차월 전망	83.5	84.1	80.7	84.8	62.5	87.3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2.1	67.7	61.4	62.4	62.5	69.8
		차월 전망	63.7	63.4	54.4	68.0	56.3	66.7
	장비수급	금월 평가	95.1	87.8	91.2	96.8	71.9	100.0
		차월 전망	91.8	89.0	93.0	91.2	78.1	92.1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